

오바마 27일 히로시마 방문... “사과는 안한다”

원자폭탄 투하 71년 만에
G7 정상회의 뒤 아베와 함께
美 정부 “핵무기 없는 세계 결의”



오바마 미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아베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2차대전 당시 나가사키(長崎)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 71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초 피폭지 방문이 된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결정에 대해 “모든 (원폭) 희생자들

을 미·일이 함께 추모하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며 “피폭지에서 세계를 향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번 방문이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한 데 대한 사과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종전 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정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우리의 공동된 미래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미국 내 2차대전 참전용사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 “미국은 2차대전 당시 국도의 공포 속에서 희생된 민간지도자와 장병들을 영원히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의 명분은 정당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감사의 빔을 지고 있다”

며 “이번 방문은 전쟁 기간 희생된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회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G7 정상회의에 맞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국제적 도전 과제는 물론 경제와 안보이슈에 대한 양자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미·일동맹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앞서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나 경제와 인권, 안보, 인권을 비롯한 글로벌·지역현안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하노이에서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화 ‘파파:쿠바의 헤밍웨이’ 주연 애드리언 스파크스(왼쪽)와 조엘리 리차드슨.

‘파파’를 위해 종이 울리나 (헤밍웨이의 애칭) 쿠바-미국 국교 정상화로 헤밍웨이 특수

현지 촬영 영화 ‘파파’ 화제
지난달 말 미국에선 영화 ‘파파 : 쿠바의 헤밍웨이’의 개봉이 화제가 됐다. 1928년 쿠바에 처음 발을 들이고 1932년 정착한 이후 쿠바와 사랑에 빠져 쿠바 혁명 직후인 1960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많은 자취를 남긴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에 대한 이야기다.
헤밍웨이는 쿠바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1940), 195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 ‘노인과 바다’ (1952) 등 길이 남을 명작들을 써냈다.
영화 ‘파파’는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재수립하기 이전부터 쿠바에서 촬영을 시작해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작품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처음으로 쿠바에서 촬영된 할리우드 영화이기도 하다.
헤밍웨이를 ‘파파’라는 애칭으로 기억하는 쿠바인들의 그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스크린뿐만 아니라 헤밍웨이가 누리고 다녔던 쿠바 곳곳에서도 폭증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헤밍웨이라는 콘텐트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재수립과 이에 따른 미국인의 쿠바 출입국 규제 완화는 여기에 불을 댕겼다. 아직 몇 가지 조건이 붙기는 하나 미국

인도 이제는 사실상 자유롭게 쿠바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현지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쿠바를 방문, 이 같은 해방 무드의 절정을 찍었다. 지난 2일에는 승객 700여 명을 실은 크루즈선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항한 배로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아바나에 닿을 내리기도 했다.
헤밍웨이 박물관이 된 옛 저택 ‘핑카 비히아’(Finca Vigia)가 소설 ‘노인과 바다’의 배경인 어촌 코히마르(Cojimar)와 20km가량 떨어져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자 코히마르에도 헤밍웨이 박물관을 만든다고 한다.
그가 초창기에 머물렀던 아바나 시내의 암보스 문도스 호텔(Hotel Ambos Mundos)에서 출발해 핑카 비히아와 코히마르 등을 돌아오는 관광상품도 있다.
시가, 럽, 살사 등과 함께 쿠바의 상징 중 하나가 된 헤밍웨이의 최대 수혜자는 물론 쿠바 정부다. 한편으로 공산주의 국가답게 헤밍웨이 관광 코스를 운영하는 관광회사도 국영이고 헤밍웨이의 쿠바 내 첫 거주지였던 암보스 문도스 호텔의 주인 역시 국영 호텔 운영업체 아바구아네스다. 헤밍웨이가 생을 마감한 지 5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쿠바에서 불멸하며 쿠바에 큰 부를 안겨주고 있다. /연합뉴스

日 주요 신문 대서특필...미일동맹 강화 환영 분위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27일) 결정을 일본 사회 전체가 크게 환영하는 가운데 일본 주요 신문들은 1면 톱 기사로 대서특필하며 미일동맹 강화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11일자 마이니치 신문은 ‘일미(日美) 심화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행하는 것은 “미일동맹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강고하게 심화해 새 시대로 들어갔다”는 인상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미일동맹은 최근 방위 정책 면에서 강화됐지만 시민들 차원에서도 연대가 깊어지고 있음을 나라 안팎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는 또 사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영단(英斷)을 평가(가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양국에 박힌 역사의 가시를 빼는 한편 보다 견고한 연대로 묶고 미일동맹을 심화시켜 세계의 안정과 번영

에 공헌토록 하는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에는 이어 아베가 오바마의 히로시마행에 동행하는데 대해 “미일동맹의 강화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할 것이기에 향후 정권 운영에 탄력을 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또 “7월 참의원 선거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집권 자민당 간부의 말을 소개하면서 두 정상 히로시마 동반 방문이 아베 정권의 패마 색채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힘을 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사실에서 “미국 대통령의 피폭지 방문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가해자인 일본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사실은 이어 “일본의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전쟁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쓰이 가즈미(松井一實) 히로시마 시장은 오바마의 방문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핵무기 폐기를 향한 국제적 움직임”을 진전시키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대형산불 원인은 지구 온난화”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대형산불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올 초 지구 반대편 호주 태즈메이니아, 미국 오클라호마-캔자스에서 비슷한 요인으로 큰 산불이 났다. 지난해도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서 기록적으로 1000만 에이커가 산불에 탔다. 큰 불길은 시베리아, 몽골, 중국에서도 일어났고 브라질에서 불이 나기 쉬운 계절은 지난 30년 간 한 달가량 늘었다.
앨버타대의 야생 화재 전문가인 마이크 플래니건 교수는 AP에 “날씨가 따뜻할수록 불이 더 잘 난다”고 말했다.

앨버타주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지난 3일과 4일 기온이 섭씨 32.8도, 31.9도를 각각 기록하는 등 통상 5월 캐나다 북부 날씨치고는 이례적이었다.
물론 대형 산불 증가 요인을 이상 고온 현상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기후 변화, 토지 이용, 화재 진압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기온이 단연 두드러진다고 플래니건 교수는 지적했다.
사우스다코타 주립대의 화재 생태학 교수인 마크 코크레인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979~2013년 지구상 산불 취약 기간은 근 19% 늘어났다. /연합뉴스



산불 진화 중간힘 10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산불의 진원지인 포트 맥머레이의 한 야산에서 소방관이 호스를 끌고 불이 난 곳을 향해 가고 있다. /연합뉴스

나사 “생명 존재 가능 행성 1284개 더 있다”

외계 지구, 즉 중력이나 온도 같은 여건들이 지구와 비슷해 생명 존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태양계 외부 행성을 1284개 더 찾아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했다.
NASA는 10일(현지시간) 새로 발견된 행성들이 99%의 확률로 외계 지구로

서의 조건을 갖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에 발표된 141개를 포함하면 외계 지구로 추정되는 행성은 2325개로 늘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물 존재 가능 외계 행성은 21개로 늘어났다.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행성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p>4층 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p> <p>1층 (커피숍 입점)</p> <p>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 올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p> <p>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p> <p>월수익 → 480만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p> <p>010-6670-9800</p>	<p>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p> <p>(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p> <p>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 좋음)</p> <p>감정가 (분할 시) → 56억 용자 → 26억(최대 31억 가능) 보 3억 월 3,000만 ◆매가 38억</p> <p>010-7384-7800</p>	<p>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p> <p>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1천만</p> <p>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용 1천 5백만) → 매가 8천 500만</p> <p>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 42만(용 1천 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용 1천) → 매가 3천 5백만</p> <p>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용 4천) → 매가 1억 5천만</p> <p>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p> <p>010-6834-4800</p>	<p>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p> <p>북구 삼각동 (6층 상가건물) - (토 183평, 건 6780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원비, 6차선 도로 접 - 삼각동동고교 부근, 아파트 단지 □감정가 170억 - 최자가 170억</p> <p>동구 동명동 - (토211평,건608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8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측 인근, 4차선 도로접 □감정가 19억 5천 - 최자가 13억 7천</p> <p>서구 양동 (숙박 시설) - (토 577평, 건 424평) - 1층 (주차장,키움) 2층~5층 (숙박시설 40개) - 광주은행 동측 인근, 약 10m 도로접 □감정가 10억 8천 - 최자가 4억 8천</p> <p>서구 화정동 (6층 건물 나이트) -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테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클럽중 - (나이트 직영, 테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감정가 130억 - 최자가 49억 7천</p> <p>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4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 □감정가 12억 - 최자가 12억</p> <p>북구 안암동 (5층 건물) - (토 66평, 건 194평) - 1층~5층 (사무실),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7억 4천 - 최자가 5억 9천</p>	<p>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p> <p>☆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 특수물건, 유채권, 가압채권,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p>(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치저렴 일하실분 환영합니다.</p> <p>010-6832-9700</p>
--	---	---	---	---